



KBS 드라마 화랑 출연진들. 왼쪽부터 김태형(한성 역), 도지한(반류), 고아라(아로), 박서준(선우), 박형식(삼맥중), 조운우(여울), 최민호(수호).

유신 금지곡 '아름다운 강산' 부른 친박 단체

어이가 없네



신중현 아들 신대철씨 비난

록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49·사진)이 친박 단체가 가요 '아름다운 강산'을 시위에 활용하는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대철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TV를 보다 친박 단체들이 집회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아름다운 강산'은 신대철의 아버지이자 한국 록의 대부인 신중현(78)이 만든 곡이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친박 보수단체들은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며 대형 스피커를 통해 이 노래를 틀었다.

신대철은 페이스북에서 '아름다운 강산'이 나오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신대철에 따르면 신중현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 "각하의 노래를 만들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신중현이 만든 '거짓말'과 '미인' 등은 금지곡으로 지정됐고, '불은 가수'라는 딱지마저 붙었다.

이후 신중현은 자신의 밴드 '신중현과 업전들'의 2집 앨범에 '아름다운 강산'을 수록했다. 신대철은 "이 곡은 권력자를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없지만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서슬 퍼런 독재권력자 박정희의 강권을 거부하고 우리 나라를 하나로 아우르는 노래를 만들었지만, 이 곡 역시 금지곡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대철은 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이 노래를 이용하는 것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춥질집회 집행부는 나를 섭외하라. 내가 제대로 된 버전으로 연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꽃남' F4 뛰어넘는 꽃미남 '화랑' F6 몰려온다

〈꽃보다 남자〉

박서준·고아라 등 출연 오늘 첫 방영 "사전제작으로 흠 없는 연기 선보여"

원칙한 키에 수려한 외모의 여섯 남자가 수백 대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을 바라보던 진행자는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감탄했다.

19일 첫 방송 되는 KBS 2TV 청춘 사극 '화랑' 출연자들이다.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 때 서라벌을 누볐던 화랑들이 주인공이다.

역사는 화랑에 대해 '외양이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 곁에 단장시켜 화랑이라 이름하고, 그를 받들게 하니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4 진흥왕 편)고 설명한다.

'선덕여왕'(MBC TV·2009) 등에 화랑이 등장한 적은 있지만, 화랑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은 처음이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연출을 맡은 윤성식 PD는 최근 열린 '화랑' 제작발표회에서 "꽃 같은 청춘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라면서 "꼭소와 미소를 계속 끌어낼 수 있는 유쾌하고 밝은 드라마"고 설명했다.

화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걸맞게 '꽃미남'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박서준과 박형식뿐 아니라 사이니 최민호, 방탄소년단 뷁 등 아이돌 가수들도 10~20대 시청자를 공략할 준비를 마쳤다.

역시 '꽃미남' 배우들이 여럿 등장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한 SBS TV '달의 연인-보보경심 러'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윤 PD는 "사전제작이다 보니 배우들이 연기 훈련할 시간이 나름 보장됐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전혀 (작품에) 흠집나지 않는 연기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 시대가 아닌, 기록이 많지 않은 신라의 사회상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살려낼지도 '화랑' 관전의 지점이다.

고아라는 흥일적인 아로를 맡았다. 그는 가장 맛있는 남배우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저도 화랑이 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남자들 사이에서 촬영해 즐거웠다"고 답했다.

아로는 엄격한 신분 사회인 신라에서 진골 아버지와 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이른바 '반쪽 귀족'이다. 부모를 여읜 뒤 신분에 대한 고민은 얼골 없는 채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외치는 당찬 아가씨다.

아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랑 선우(박서준 분)와 얼굴 없는 왕, 삼맥중(박형식)과 엮이면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고아라는 "서준 오빠가 저를 구하는 장면을 비롯해 액션 장면을 정말 많이 찍었는데 참 많이 배려해주더라"며 고마워했고, 박형식에 대해서는 "연기 호흡을 많이 맞춰 보면서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박서준(28)이 맡은 무명은 천민촌에서 자라나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은 인물이다. 우연한 기회에 화랑이라는 지위와 선우라는 가명을 얻은 무명은 얼골 없는 임금, 삼맥중(박형식 분)이 훗날 진흥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서준은 "무명은 청춘의 성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정말 패기 넘치게 찍었다"고 강조했다.

"무명의 대사 중에 '천인이어서 못 가는 곳이 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있어요. 것처럼 무명은 신라의 철저한 계급 사회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박서준은 출연 배경에 대해 "이제 곧 서러이 된다"면서 "20대의 마지막을 청춘극으로 장식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화랑' 출연 제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회적인 이미지가 강한 박서준의 사극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서준은 "격정을 많이 하긴 했다"면서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도심이 아닌 산골짜기나 황야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일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말했다.

훗날 역사가 진흥왕으로 성장하는 삼맥중은 어머니의 실정 때문에 '얼골 없는 왕'으로 산다. 삼맥중은 선우와 아로를 만나면서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삼맥중을 맡은 박형식은 "실존 인물인 만큼 부담도 컸지만, 대본을 보자마자 꼭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첫 사극인 데다 제가 그 시대에 살지도, 그런 신분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제작진과 계속 상의하면서 캐릭터를 고민했어요. 서준 형에게도 많이 물어봤고요."

겉으로 보기에 삼맥중은 예민하고 까다롭지만, 그 이면에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게 박형식의 주문이다.

박형식은 경쟁작인 MBC TV '불야성'의 유희와 전자 '상류사회'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그는 "유희와 경쟁하게 될지 몰랐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다"면서도 "물론 제 작품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화랑'은 19일 밤 10시에 첫 방송 된다. /연합뉴스

멤버교체 논란 런닝맨, 내년 2월 종영

멤버교체 소동을 벌인 SBS TV '런닝맨'이 결국 막을 내리게 됐다. SBS는 '런닝맨'을 내년 2월 종영한다고 밝혔다.

SBS 홍보팀은 "‘런닝맨’ 출연진과 제작진이 긴급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송지효와 김중국 등 멤버들이 오해를 풀었고, 이대로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런닝맨'은 지난 14일 송지효와 김중국이 하차하고 강호동이 새롭게 투입돼 시즌2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송지효와 김중국이 자신들의 하차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를 지켜본 강호동은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하루 만에 출연을 번복해버렸다.

'런닝맨' 제작진은 "김중국과 송지효를 더 사려 깊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두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Time,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4 columns: Time, EBS1, EBS2, EBS3.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9일 (음 11월 21일 乙亥). 운세 forecast for various zodiac signs including 子, 丑, 寅, 卯, 辰, 巳.